

## 경덕왕대 향가 4수의 의미와 역할

박인희\*

### 차 례

1. 서론
2.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
3.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도솔가>와 <안민가>
  - 3.1. <도솔가>와 ‘이일병현’
  - 3.2. <안민가>와 경덕왕의 의도
4. <제망매가>와 <찬기파랑가>의 존재 이유
  - 4.1. 일연의 <제망매가> 수록 의도
  - 4.2. 경덕왕의 <찬기파랑가> 소개 의도
5. 결론

### | 국문초록 |

본고는 경덕왕 때 지어진 향가 <도솔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파랑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솔가>는 『삼국유사』 감통편에 실렸고, <안민가>는 기이편에 실렸다. 두 노래는 편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노래들이다. 그런데 <도솔가>는 <제망매가>와 같이 실려 있고, <안민가>는 <찬기파랑가>가 같이 실려 있다. 이전의 논의에서는 이 노래들이 작가인 월명사와 총담사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었다. 본고에서는 작자보다는 <도솔가>와 <안민가>를 짓게 한 경덕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망매가>와 <찬기파랑가>가 같이 다루어진 이유도 따져보았다.

경덕왕을 중심으로 볼 때 <도솔가>의 창작 동기인 ‘이일병현’은 내물왕계의 등장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도솔가>는 내물왕계의 등장을 정치적 타협으로 무마시킨 결과로서 경덕왕이 신하들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안민가>는 해공왕 출생담과 관련된 노래로서 경덕왕이 왕자, 신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나라가 태평하려면 신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노래였다. 그럼으로써 신하들을 권계하기 위함이었다.

일연이 <제망매가>와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도솔가>가 지어진 이야기만으로는 감통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일연은 감통편 이야기로서 한계가 있는 <도솔가>가 지어진 이야기에 <제

\* 국민대학교

망매가)와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를 소개하여 월명사의 신앙심을 보여주었다. 그럼으로써 ‘월명사도 술가’조를 감통편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 경덕왕이 <찬기파랑가>를 언급한 것은 총담사에게 신하의 역할을 강조하는 <안민가>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경덕왕은 <안민가>를 요구하기 전에 <찬기파랑가>를 언급함으로써 총담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핵심어** : 향가, 도술가, 안민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삼국유사

## 1. 서론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14수 중에는 경덕왕 때 지어진 향가가 5수나 된다. 기이편에 총담사가 지은 <안민가>와 <찬기파랑가>가 실렸고, 감통편에 월명사가 지은 <도술가>와 <제망매가>가 실렸으며, 탐상편에는 희명의 아이<sup>1)</sup>가 지은 <도천수대비가>가 실렸다. 그런데 기이편 두 수와 감통편 두 수가 각각 한 이야기 속에 실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민가>와 <도술가>는 경덕왕의 명에 의해 지어졌으며,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노래인데도 다른 편목에 실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경덕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민가>와 <도술가>, 그리고 이 작품들의 작자기 지은 <찬기파랑가>와 <제망매가>를 살펴보고 한다.<sup>2)</sup> <안민가>와 <도술가>는 경덕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기이편과 감통편에 나뉘어 실림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는 방향이 나뉘게 되었다. 기이편에 실린 <안민가>는 경덕왕대 정치 상황과 관련지어 논의됨으로써 정치적 성격의 노래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감통편에 실린 <도술가>의 경우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으리라 보지만 결론적으로는 불교적 성격을 지닌 노래로 받아들여졌다. 본고에서도 이 두 노래의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민가>와 <도술가>가 경덕왕의 명에 의해 지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논의가

1) 다섯 살 아이가 지었을 리 없지만 『삼국유사』의 기록 ‘命兒作歌禱之’를 따른다.

2) 경덕왕 때 지어진 <도천수대비가>가 경덕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작자를 중심으로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두 노래를 경덕왕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경덕왕의 명에 의해 지어진 두 노래를 경덕왕을 중심으로 이해했을 때, 두 노래를 어떤 노래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렇게 보았을 때 같이 실린 <찬기파랑가>와 <제망매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본고에서 경덕왕을 중심으로 <안민가>와 <도솔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경덕왕이 왕이기 때문에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전제로 살펴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경덕왕의 입장에서 <안민가>와 <도솔가>가 어떤 노래인지 드러나리라 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찬기파랑가>와 <제망매가>가 실린 까닭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른 향가들은 이야기 속에 홀로 존재하는데 <안민가>가 실린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와 <도솔가>가 실린 ‘월명사도솔가’조만이 두 수의 향가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이야기에서 <안민가>와 <찬기파랑가>, <도솔가>와 <제망매가>는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덕왕대 향가 4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넓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2.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

경덕왕의 명에 의해 지어진 <안민가>와 <도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덕왕대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민가>의 경우는 노래의 내용이 다분히 정치적이어서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반면 <도솔가>의 경우는 노래가 지어진 동기와 노래를 지은 시점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민가>가 실린 『삼국유사』 기이편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를 보면 경덕왕의 아들 해공왕에서 다음 왕인 선덕왕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김씨에서 박씨로 왕권이 바뀌었으며, 모반에 의해 왕권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둘 때 <도솔가>가 지어진 동기인 ‘이일병현’도 왕권과 관련한 상징으로 해석될 여지

가 많다. 일반적으로 해는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일병현’은 왕권과 관련한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작품은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은 경덕왕이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이해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경덕왕 4년(745) 7월에 동궁을 보수하고 사정부(司正部)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sup>3)</sup> 경덕왕의 이런 조치에 대해 “동궁수증과 사정부는 왕위계승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왕권강화를 위해 설치”<sup>4)</sup>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7년(748)에는 사정부라는 감찰기관이 있음에도 정찰(貞察)을 두어 백관들을 규정(糾正)하기<sup>5)</sup>도 했는데 이 역시 왕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덕왕 16년(757)에는 지방 군현의 명칭을, 18년(759)에는 중앙정부의 명칭도 중국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專制主義的 政治體制를 이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sup>6)</sup>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경덕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 왔으며 경덕왕의 왕권 강화 조치는 중앙정부의 명칭을 바꾸는 데서 일단락되는 것 같다.<sup>7)</sup>

경덕왕은 집권 기간 전반에 걸쳐 왕권을 강화하였지만 그 과정이 순조로울 수만은 없었다. 왜냐하면 왕권이 커지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처럼 귀족들의 세력이 강할 경우, 귀족들은 왕권이 커지는 것을 반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왕은 귀족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덕왕의 집권 후반기에 귀족들과 관계에 균열이 생긴 듯하다. 이렇게 볼 수 있

3) “秋七月葺東宮 又置司正府少年監典穢宮典”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4年)

4) 申政勳, 「8世紀 統一新羅의 政治의 推移와 天災地變의 性格」, 中央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32쪽.

5) “始置貞察一員 糾正百官”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7年)

6)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218쪽.

7) 『삼국사기』에 따르면 경덕왕 21년(72)에 지금의 황해도 지방에 6성을 쌓고 태수를 두었다고 한다. 이것 역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경덕왕이 6성을 쌓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경덕왕이 6성을 쌓은 곳은 발해와 국경 지역이었는데 당시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에 발해를 끌어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덕왕이 6성을 쌓은 것은 왕권 강화의 측면이라기보다 이러한 정세를 파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韓圭哲, 「新羅와 渤海의 交涉과 對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94, 314-315쪽.

는 것은 경덕왕 4년 상대등에 올랐던 김사인이 경덕왕과 사이가 벌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사인은 경덕왕 15년 2월에 천재지변이 반복되는 것을 이유로 시정득실에 대해 극론하는 상소를 올렸고 경덕왕은 이를 받아들였다.<sup>8)</sup> 그런데 김사인은 자신의 상소를 경덕왕이 받아들였음에도 이듬해 정월에 병을 이유로 상대등에서 물러난다. 김사인이 물러난 것에 대해서 경덕왕의 왕권 강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sup>9)</sup> 사랑부인을 둘러싼 세력의 등장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sup>10)</sup> 어떤 이유에서건 상대등인 김사인이 물러난 것은 경덕왕의 왕권 강화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덕왕은 상대등으로 신충을 임명[16년 정월]하고 녹읍을 부활[16년 3월]시킨다. 상대등에 오른 신충은 후에 경덕왕을 위해 단속사에 들어가 왕의 복을 빌었던 사람이다.<sup>11)</sup> 그러므로 신충은 경덕왕의 왕권 강화에 반대한 인물로 보지는 않는다. 경덕왕은 자신을 지지하는 신충을 상대등으로 앉힌 후 녹읍을 시행하였다. 녹읍은 신문왕 9년(689)에 폐지된 제도로서 “신라의 내외관에게 지급한 경제적 대우로서, 그 명칭으로 보아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추측”<sup>12)</sup>되는 제도이다. 녹읍의 부활은 신라의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귀족들에게는 환영 받았을 조치일 것이다. 그런데 경덕왕은 16년 12월에 지방군현의 명칭을, 18년 정월에 중앙정부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로 보아 경덕왕이 녹읍을 부활시킨 것은 왕권 강화 조치를 계속해 가기 위해

8) “上大等金思仁 以比年災異屢見 上疏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15年)

9) 李基白, 앞의 책, 1974, 218쪽.

10) 김사인이 물러난 것에 대해 사랑부인(삼모부인)을 둘러싼 세력의 등장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경덕왕 13년 사랑부인은 황룡사 종을 시주했는데 경덕왕이 황룡사에 행차한 후 시중 조량의 비정상적인 퇴직과 11개월 동안 시중이 임명되지 못한 점 등이 사랑부인을 둘러싼 세력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사인이 반발했기 때문에 김사인이 물러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申政勳, 「新羅 景德王代 王權強化策의 性格」, 『동서사학』 6·7합, 동서사학회, 2000, 31-36쪽.

11) “二十二年癸卯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 落髮爲沙門 爲王創斷俗寺居焉 願終身丘壑 以奉福大王 王許之 留真在金堂後壁是也” (『三國遺事』, 避隱, 信忠掛冠)

12) 박찬홍, 「신라 녹읍의 수취에 대하여」, 『韓國史學報』 6, 高麗史學會, 1999, 62쪽.

반대 세력에게 제시한 일정한 타협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sup>13)</sup> 일련의 조치를 고려한다면 경덕왕은 반대 세력을 무마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한 후 왕권 강화를 계속해 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정부의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경덕왕의 왕권 강화 조치는 일단락되는 것 같다. 그런데 경덕왕 22년(763)에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용이 동시에 사면하는 일이 생긴다. 상대등과 시중이 동시에 관두는 일은 “신라 중대 정치사의 흐름에 있어, 처음 단행된 일로서 주목”<sup>14)</sup>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왕이 총애하던 이순도 하루아침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된 후 산에 들어갔으며, 후에 왕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듣고 걸·주를 예를 들며 왕이 허물을 고칠 것은 간하고 있다.<sup>15)</sup> 이순처럼 왕의 주위에서 왕을 도와야 할 인물이 떠난 것은 경덕왕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변화가 있었거나 경덕왕의 정치적 행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4개월이나 상대등과 시중 자리를 비워두었다가 새로 임명한 자가 만종과 양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시중으로 임명된 양상은 후에 선덕왕이 되는 자로서 『삼국유사』에 따르면 경덕왕의 아들 해공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자이다. 그러므로 양상을 시중으로 등용했다는 점에서 이때 상대등과 시중의 등용은 경덕왕 집권 후반기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 변화에는 왕자의 늦은 탄생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덕왕은 집권 초부터 왕자 탄생을 원했었다. 경덕왕이 왕자 탄생을 원했던 것은 왕비인 사랑부인<sup>16)</sup>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즉위한 다음 해에

13) 金英美, 「統一新羅時代 阿彌陀信仰의 歷史의 性格」, 『韓國史研究』 50·51, 韓國史研究會, 1985, 74쪽.

14) 趙二玉, 「統一新羅 景德王代 專制王權과 祿邑에 對한 再解釋」, 『東洋古典研究』 1, 東洋古典學會 1993, 98쪽.

15) “大奈麻李純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 累徵不就 剃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居之 後 聞王好樂 卽詣宮門 諫奏曰 臣聞 昔者桀紂荒于酒色 淫樂不止 由是 政事凌遲 國家敗滅 覆轍在前 後車宜戒 伏望大王改過自新 以永國壽”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22年)

16) 아들이 없어 폐비가 경덕왕비는 『삼국유사』 기이편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에 따르면 사랑부인인데 왕력편에 폐출되었다고 기록된 왕비는 삼모부인이다. 그러므로 사랑부인과 삼모부인은 동일인물일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르면 경덕왕이 서불한 의종의 딸을 왕비로 얻기 전의 왕비가 順貞의 딸이라 하였으므로 사랑부인(삼모부인)은 바로 순정의 딸일 것

출궁시킨 것과 나라가 위태롭더라도 왕자를 원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새 왕비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경덕왕 17년(758)이 되어서야 왕자를 낳았다. 왕권 강화를 도모했던 경덕왕에게 왕자가 늦게 태어난 것은 정치적 불안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귀족의 세력이 강한 신라 사회에서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귀족들의 권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귀족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왕자가 빨리 태어나서 부왕인 경덕왕 아래에서 성장해야만 강화한 왕권을 유지할 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경덕왕이 왕자 탄생에 연연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경덕왕 16년 이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면서도 녹읍을 부활시킨 것이나 상대등과 시중의 교체가 빈번했던 것은 귀족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더욱이 왕자가 어리니 경덕왕은 어린 왕자를 위해서라도 귀족 세력들의 불만을 어떤 식으로든 무마해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왕자가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겼다는 점<sup>17)</sup>에서 경덕왕의 왕권 강화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경덕왕은 집권하는 동안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귀족 중심의 신라 사회에서 경덕왕의 노력은 귀족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었고, 경덕왕의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귀족들의 불만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집권 후반기에 태어난 왕자의 성장과정을 볼 때 경덕왕은 왕자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경덕왕은 왕자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하기를 바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경덕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혜공왕은 부왕의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되돌렸으며, 끝내는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은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과 왕권의 불안요인으로 왕자의 존재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이다.

17) 『삼국유사』에는 혜공왕이 선덕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삼국사기』에는 혜공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찬 김지정이 모반을 일으켰고,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난병에 의해 혜공왕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에 따라 표현한 것이다.

### 3.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도솔가>와 <안민가>

#### 3.1. <도솔가>와 ‘이일병현’

<도솔가>는 『삼국유사』 감통편 ‘월명사도솔가’조에 실려 있다. 그 동안 <도솔가>는 주로 불교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이일병현’이 사라진 것도 월명사의 신앙심 때문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도솔가>가 지어진 이유가 ‘이일병현’이라는 변괴 때문이라면 ‘이일병현’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일병현’<sup>18)</sup>은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변괴가 아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혜성이 나타났을 때는 혜성이라 하였으므로 ‘이일병현’은 혜성의 등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일병현’ 현상은 문자 그대로 해가 들이 등장했다는 표현인데, 해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일병현’ 현상은 왕권과 관련한 사건<sup>19)</sup>을 표현한 것이 분명하다.

해는 흔히 왕을 상징한다. 『삼국유사』에도 해가 왕과 관련된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고구려’조에서는 햇빛[日光]이 비추어 유화가 임신을 하게 되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태어나게 된다. ‘신라시조혁거세왕’조에서는 번쩍이는 빛처럼 이상한 기운이 땅에 내린 후 혁거세가 등장했다. 또한 ‘가락국기’조에서는 해처럼 둥근 여섯 개의 알[有黃金卵六圓如日者]로부터 수로가 태어난다. 한편 ‘연오랑세오녀’조는 해와 달의 정기가 없어졌다가 되살아나는 이야기인데 이때 신라의 왕위가 박씨에서 석씨로 왕권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해는 왕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그러므로 경덕왕 19년 4월의 ‘이일병현’ 현상도 왕이 될 만한 인물의 등장이나 왕에 견줄 만한 세력의

18) ‘이일병현’ 현상을 일식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식이 열흘이나 계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일병현’ 현상을 일식으로 볼 수는 없다. 황병익은 이를 환일 현상으로 이해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라고 지적한다. 黃柄翊, 『三國遺事』 ‘二日並現’과 『兜率歌』의 의미 고찰, 『語文研究』 115,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2, 151-154쪽.

19) 일찍이 윤영옥은 ‘이일병현’에 대해 “君王에 挑戰할 勢力의 出現”이라 했으나 이들이 누구인지는 다루지 않았다.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0, 60쪽.

20) 김알지의 경우 시립(始林)에서 큰 광명이 보였고, 구름 속에 황금의 궤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고 했다. 이는 곧 해가 뜨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김알지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다.



등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일병환’을 왕이 될 만한 인물이나 왕에 견줄 세력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발견된다. 『삼국사기』의 경순왕 때 기록을 보면 신라를 상대·중대·하대로 나누는데 하대가 선덕왕 때부터라고 한다.<sup>21)</sup> 즉 경덕왕과 왕재[혜공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선덕왕[김양상]부터는 전대와 구분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덕왕과 원성왕의 가계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확인된다. 『삼국사기』에는 선덕왕과 원성왕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내물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혀 놓고 있다.<sup>22)</sup>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덕왕도 내물왕의 후손이라는 점 때문이다. 김씨로 신라 왕위에 처음 오른 왕은 13대 미추왕이다. 미추왕이 죽은 후 석씨가 3대에 걸쳐 왕위를 계승하다가 17대 내물왕이 왕위에 오른 후부터는 김씨가 신라 왕위를 계승한다. 그러므로 경덕왕도 내물왕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sup>23)</sup> 그런데도 선덕왕과 원성왕을 소개하면서 내물왕의 후손임을 밝힌 것은 이들이 무열왕의 후손인 경덕왕과 다른 계통이기 때문일 것이다.<sup>24)</sup> 무열왕의 후손이 아닌 이들은 경덕왕 때 세력화했고 결과적으로는 혜공왕을 내치고 왕위에 올랐다. 그러므로 내물왕계는 무열왕계와 구분되는 왕통으로서 ‘또 다른 해’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일병환’으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sup>25)</sup>

‘이일병환’의 변괴는 <도솔가>를 부름으로써 사라졌다고 했다. 이것은 또 다른 해의 등장, 즉 경덕왕의 왕권 강화에 불만을 가진 내물왕계 세력이 무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26)</sup> ‘이일병환’의 변괴가 있었던 경덕왕 19년 4월에 시중의

21) “國人自始祖至此 分爲三大 自初至眞德二十八王 謂之上代 自武烈至惠恭八王 謂之中代 自宣德至敬順二十王 謂之下代云” (『三國史記』, 新羅本紀, 敬順王)

22) 『삼국사기』에는 선덕왕은 내물왕의 10세손이며 원성왕은 내물왕의 12세손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원성왕의 뒤를 잇는 소성왕부터는 내물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다.

23) 내물왕 이후의 왕위 계승을 따져 보았을 때 경덕왕은 내물왕의 13세손이 된다.

24) 무열왕의 아버지는 용수[춘]이고, 할아버지는 진지왕이다. 그러므로 선덕왕과 원성왕이 무열왕의 후손이 아니라면 진지왕 이전 왕의 후손이어야만 한다.

25) 조동일은 이때부터 김양상 쪽의 도전이 치열했다고 본다. 조동일, 『(제3판)한국문화통사』 1권, 지식산업사, 1994, 165쪽.

26) 내물왕계가 결국은 왕위에 오르게 되므로 이때 ‘이일병환’이 사라진 것은 내물왕계 세력의 몰락, 해체로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일병환’이 사라진 것은 내물왕계의 등장이 잠시 유보된 것으

교체가 있었다. 시중 염상이 퇴관하여<sup>27)</sup> 김용으로 하여금 시중을 삼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시중의 교체는 시중의 평균 재임기간에 못 미치며 춘계에 교체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교체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sup>28)</sup> 더욱이 새로 임명된 김용은 경덕왕의 왕권 강화에 반대하던 인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용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궁된 사랑부인과 친족관계였는데, 경덕왕이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랑부인을 출궁시킨 것이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김용을 경덕왕의 왕권 강화에 반대하던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29)</sup> 그렇다면 김용의 시중 임명은 왕권 강화에 불만을 가진 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경덕왕의 결단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덕왕의 왕권 강화는 중앙정부의 명칭을 중국식을 바꾸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경덕왕에게 중요한 것은 태자 책봉을 함으로써 왕위 계승을 확고히 하는 일이었다. 경덕왕이 김용을 시중에 앉힌 것은 내물왕계를 포함하여 왕권 강화에 불만을 가진 세력을 무마시켜서 왕자의 태자 책봉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단인 것이다. 김용을 시중으로 임명한 후 태자 책봉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만 세력을 무마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일병현’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일병현’을 정치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 <도술가>의 내용도 미륵불을 모시라는 불교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담겼을 수 있다. 즉 <도술가>는 ‘이일병현’에 대한 경덕왕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일 수 있다. 경덕왕이 왕권 강화를 하면서도 녹읍을 부활시키고, 불만 세력인 김용을 시중에 임명했던 것은 왕권 강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다음 왕위를 이을 어린 왕자를 염두에 둔다면 내물왕계의 등장은 경덕왕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

로 보아야 한다.

27) 이도흠은 경덕왕 17년 시중 김기의 사망으로 임명된 염상이 이때 교체된 사실을 근거로 염상이 왕권에 도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왕권을 위협했던 염상을 몰아내고 왕권 강화를 반대한 인물로 볼 수 있는 김용을 시중에 앉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도흠, 「도술가의 和諍詩學的 研究」,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74-76쪽.

28) 申政勳, 앞의 논문, 45쪽.

29) 金壽泰,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邕」, 『歷史學報』, 99·100, 歷史學會, 1983, 127-139쪽. 한편 申政勳은 경덕왕이 김용을 시중으로 임명하고 난 후 태자 책봉을 했다는 점에서 김용을 경덕왕의 지지 세력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申政勳, 앞의 논문, 48쪽.

래서 경덕왕은 불만 세력을 무마시키는 한편 월명사로 하여금 불만 세력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월명사가 승려이기는 하나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하였으니 당시의 정세를 몰랐을 리는 없다. 월명사는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청양루에 행차한 것을 보고 왕의 마음을 헤아려 <도솔가>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월명사가 성범에 서툴다면서 노래를 향가로 불렀기 때문이다. 월명사가 성범에 서툴건 서툴지 않건 성범으로 노래를 부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솔가>에 담긴 경덕왕의 메시지가 신하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다. 월명사가 향가로 부른 것은 모든 사람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야 왕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덕왕이 월명사에게 큰 상을 내린 것은 월명사가 부른 노래의 내용이 자신이 신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솔가>에서 경덕왕의 메시지가 암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3~4구이다. 3구는 ‘곧은 마음의 命에 부리워져’<sup>30)</sup>이다. ‘곧은 마음’에서 ‘곧다’는 ‘不曲, 正, 義’<sup>31)</sup>를 뜻하므로 ‘곧은 마음’은 사심이 없는 마음이다. 그런데 ‘곧은 마음의 命에 부리워져’라고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현재 사람들이 곧은 마음의 명령에 부리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은 마음의 명령에 부림을 받아서 해야 할 일로 4구가 표현된 것이다. 4구에서 ‘彌勒座主 되셔 羅立하라’<sup>32)</sup>라는 것은 곧은 마음의 명령에 부림을 받아서 미륵불을 모시라는 의미이다. 3~4구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불교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노래의 청자가 청양루에 모였던 왕과 신하들이며 이 노래를 경덕왕이 부르게 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3~4구의 내용은 신하들을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3~4구의 내용이 신하들을 향한 것이라면 4구에서 ‘미륵좌주’는 신하들이 곧은 마음의 명령에 부림을 받아 모셔야 할 왕을 뜻하게 된다. 즉 월명사는 ‘경덕왕을 미륵불과 일치시켜 왕즉불(王卽佛)의 관념’<sup>33)</sup>의 반영하여 3~4구를 표현

30)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出版部, 1980, 123쪽.

31)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10, 檀國大 出版部, 2007, 12쪽.

32) 金完鎭, 앞의 책, 1980, 123쪽.

33) 신재홍,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 <도솔가>, <안민가>, <원가>를 대상으로」, 『古典文學研究』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199쪽.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명사의 입을 통해 신하들에게 전하려는 경덕왕의 메시지는 ‘곧은 마음의 명령을 부림을 받아서 왕을 모셔라.’라는 것이다.

경덕왕이 왕권 강화를 도모한 왕이었다는 사실과 경덕왕 19년 존재했던 일들을 고려한다면 <도솔가>의 창작의 원인인 ‘이일병환’은 정치적으로 이해해야 할 사건이다. 특히 왕권을 강화하던 경덕왕이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인물을 시중으로 임명한 후 태자 책봉을 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협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경덕왕과 태자가 무열왕계인데 이후 내물왕계가 무열왕계를 내쫓고 왕위를 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일병환’은 태자 책봉 무렵의 정치적 상황의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전제할 때 <도솔가>도 ‘이일병환’을 실제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의 은유 속에 등장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노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도솔가>는 정치적 타협 속에 존재하는 경덕왕의 메시지로써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신하에게 필요한 곧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노래인 것이다. 다만 월명사가 <도솔가>를 부름으로써 ‘이일병환’을 사라지게 했다는 이적이 두드러지다 보니 감통편에 수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2. <안민가>와 경덕왕의 의도

<안민가>는 제목으로나 내용으로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노래이다. 앞서 살펴본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안민가>와 같은 노래는 경덕왕대 어느 때에 창작되어도 어울릴 만한 노래처럼 보인다. 그런데 경덕왕대는 <안민가>의 내용이 잘 실천된 때로 볼 수 있다. <안민가>의 내용은 나라가 태평하려면 왕과 신하, 백성이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덕왕은 왕권 강화를 도모한 왕이어서 신하들이 경덕왕에게 불만을 가졌었고, 천재지변이나 기근, 역질도 자주 있었다. 그래서 경덕왕대를 태평성대라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태평성대가 아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경덕왕은 왕권 강화를 도모한 왕이었지만 신하들이 상소할 때마다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으며, 녹읍의 부활시킴으로써 신하들의 불만을 덜어주었다. 또한 기근과 역질이 들 때는 신하들을 사방으로 보내 순무하였으며, 병든 노인과 외롭고 의

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배필기도 하였다. 이로 보아 경덕왕이 왕 역할을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태평성대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워도 나라가 위태로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민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경덕왕의 뒤를 이은 혜공왕 때 일어난 일들이다. 혜공왕은 당시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sup>34)</sup>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것은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신하가 왕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이다. 혜공왕의 죽음은 혜공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혜공왕 때 여섯 차례에 걸쳐 모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sup>35)</sup> 혜공왕 때 모반이 자주 일어난 이유는 혜공왕 출생담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혜공왕 출생담의 핵심은 남자로 태어날 운명이 아닌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리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혜공왕은 여자가 될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관심이 적었던 인물로 볼 수 있다.<sup>36)</sup>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관심이 없으니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혜공왕은 신하 손에 죽었으니 <안민가>의 내용이 요구되던 때는 경덕왕 때가 아니라 혜공왕 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안민가>의 창작 경위를 소개한 후 이어서 혜공왕 출생담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안민가>는 혜공왕과 관련이

34) 『삼국사기』에 따르면 혜공왕은 김지정이 일으킨 모반을 김양상과 김경신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난을 일으킨 병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본고는 『삼국유사』에 실린 <안민가>를 다루는 것이므로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혜공왕이 김양상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겠다.

35) 혜공왕 때는 여섯 차례의 모반이 있었다. 첫 모반인 혜공왕 4년 7월에 일길찬 대공과 아찬 대염이 일으킨 모반은 왕궁을 33일이나 에워싸고 있었을 정도였다. 11년에는 6월과 8월 두 차례나 모반이 있었는데 8월에 있었던 모반은 전 시종인 염상이 일으킨 모반이었다. 그리고 16년도 두 차례 모반이 있었는데 2월에는 김지정이 모반을 일으켰고, 4월에는 김양상·선덕왕과 김경·신원성왕이 군사를 일으켰다. 이때 혜공왕은 목숨을 잃게 된다. 이밖에 6년 8월에도 대어찬 김용이 모반을 일으켰었다. 강성원에 따르면 신라 때 모반은 총 50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혜공왕 때 일어난 여섯 차례의 모반은 신라왕 재위 중 가장 많은 횟수이다. 姜聲媛, 『新羅時代 叛逆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42, 韓國史研究會, 1983, 23-60쪽.

36)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신하의 상소나 충간에 대한 왕의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경덕왕 15년 상대등 김사인의 상소와 22년 충신 이순의 충간에 대해 경덕왕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었다. 반면 혜공왕 13년 상대등 김양상의 상소에 대해 혜공왕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를 보면 혜공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들의 말을 듣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민가>가 혜공왕과 관련이 있다고 볼 때, 경덕왕이 충당사에게 <안민가>를 요구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혜공왕 출생담의 핵심인 ‘아들을 낳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sup>37)</sup>이라는 상제의 경고에서 찾을 수 있다. 경덕왕은 아들을 얻기 위해 상제의 경고를 무시했다. 하지만 왕자가 돌 때부터 여자의 놀이를 하고 자라는 것을 본 경덕왕은 상제의 경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태자 책봉 과정에서 경덕왕은 불만 세력과 타협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왕권 강화를 도모해 온 경덕왕에게 왕자의 이런 모습과 불만 세력의 존재는 걱정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sup>38)</sup> 그래서 경덕왕은 상제의 경고가 실현되지 않도록 충당사에게 <안민가>를 짓도록 한 것이다. 경덕왕이 <안민가>를 짓게 한 충당사는 “화랑도로 활동하던 낭도승려”<sup>39)</sup>로 추정된다. 경덕왕은 충당사와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으나 충당사가 어떤 인물이며, 행세나 행적이 어떠한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경덕왕이 충당사가 만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경덕왕은 삼진날 신하들을 거느리고 귀정문 누각에 나가서 위의 있는 승려를 모셔 오라고 시켰었다. 신하들은 위의 있고 깨끗한 차림의 대덕을 모셔왔지만 경덕왕은 자신이 원하는 승려가 아니라며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앵통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던 충당사를 지목하여 모셔오라고 했다. 경덕왕은 충당사의 이름을 듣고서는 <찬기파랑가>를 언급하며 <안민가>를 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보면 경덕왕은 충당사가 어떤 행색을 하고 있으며, 삼진날 언제쯤 어디를 다녀오는지, <찬기파랑가>를 지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

37) “帝曰 可則可矣 然爲男則國殆矣” (『三國遺事』, 紀異,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38) 경덕왕에게 왕자의 이런 모습이 걱정일 정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안민가>의 창작 시기를 <도솔가>보다는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본다. 아마도 왕자에게 남자 아이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질 때인 예닐곱 살 때로 보면 경덕왕이 죽기 1~2년 전쯤에 창작되었을 것이다. <도솔가>보다 후에 지어졌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두 노래의 창작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두 노래 모두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특정 공간에 갔다가 지나가는 승려로 하여금 짓게 하였으며, 두 승려가 미륵부처를 모신다는 공통점도 있다. 경덕왕은 <도솔가>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안민가>를 짓게 한 것으로 보인다.

39) 신재홍, 앞의 논문, 202쪽.

다. 즉 경덕왕은 충담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충담사의 행적에 맞춰 귀정문 누각에 나갔고, 신하들이 데려 온 승려를 돌려보내고 대신 앵통을 맨 승려를 지목해서 모셔 오라고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 때 신하들이 모셔 온 대덕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지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충담사가 노래를 짓자 경덕왕은 그 노래를 아름답게 여겼다고 하였다. 경덕왕이 노래를 아름답게 여긴 것으로 보아 노래의 내용이 경덕왕의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민가>의 내용을 보면 왕, 신하, 백성이 제 역할을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노래를 경덕왕이 아름답게 여겼던 것은 왕자의 상황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왕자의 상황으로 보아 자신이 죽고 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민가>의 내용이 나라가 위태로워지리라는 상제의 경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경덕왕이 <안민가>를 듣고서 충담사를 왕사로 봉했던 것<sup>40)</sup>은 <안민가>가 경덕왕이 바라던 바를 담은 노래였기 때문이다. 즉 <안민가>는 나라가 위태로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경덕왕이 아름답게 여겼던 것이다.

충담사가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혜공왕 출생담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혜공왕 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신라 10성으로 일컬어지는 표훈대덕이다. 충담사와 표훈대덕은 동시대 살았던 인물들이므로 충담사는 표훈대덕이 혜공왕 출생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sup>41)</sup> 게다가 충담사는 경덕왕이 선택한 승려였다. 경덕왕이 충담사를 선택했다는 것은 충담사가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담사는 경덕왕이 원하는 노래를 지어 바쳤다.

<안민가>의 전구에서 왕은 아버지, 신하는 사랑하시는 어머니, 백성은 어리

40) 경덕왕은 충담사를 왕사로 봉했지만 충담사는 정중히 사양하였다.

41) 화엄종 승려로 알려진 표훈에 대해 김복순은 유가계의 황복사에 머무르며 대덕으로 있었던 점을 들어 처음에는 유가계 승려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미륵불을 섬겼던 충담사가 표훈과 관련한 일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왜냐하면 유가계는 미륵신앙을 동반하고 있어서 충담사가 황복사의 대덕으로 있던 표훈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민가>를 짓고 왕사로 봉해질 정도의 충담사는 표훈과 관련된 혜공왕 출생담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 민족사, 1990, 52쪽.

석은 아이라고 한 후 후구에서 왕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태평하리라고 하였다. 왕자의 출생담을 염두에 둘 때 왕이 아버지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표현은 왕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왕다운데 왕자가 여자 같으니 왕이 되어서는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래야만 왕다운 왕이 되는 것이며, 신하나 백성들이 왕으로서 섬기게 되어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하를 어머니라고 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섬기듯이 신하들도 왕을 모셔야 하는 존재임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안민가>에서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는 주체로 어머니를 다름으로써 신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sup>42)</sup>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민가>에서 백성들을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는 누가 왕이 되든지, 누가 신하이든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데 문제만 없다면 나라를 버리지 않겠지만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살고 있는 곳을 떠날 존재이다. 신하의 역할이 강조된 것은 왕자의 상태와 백성들의 습성으로 보아 신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왕자가 왕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더라도 신하들이 왕을 섬기며 백성들을 다독이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 하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민가> 후구에서 왕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리라고 한 것이다.

경덕왕은 자신의 아들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으려면 왕자는 남자다워져야 했고, 신하들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왕을 섬겨야만 했다. 그래서 경덕왕은 자신이 선택한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짓게 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노래를 듣게 한 것이다. 충담사는 경덕왕의 마음을 헤아려 어린 왕자에게는 왕의 본분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밝히었고, 신하들에게는 신하의 본분이 왕을 잘 섬기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각성시켜 줌으로써 나라가 태평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였다. 즉 나라가 태평하려면 왕, 신하, 백성이

42) 임주탁, 「<안민가>의 창작 동기와 의미 해석」, 『한국문화논총』 57, 한국문화회, 2011, 19-20쪽.



각자 본분을 다해야 하는 데 백성들은 어리석은 아이와 같아서 사랑을 베푸시는 어머니로서 신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안민가>는 총담사를 통해 왕자와 신하들에게 전하는 경덕왕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경덕왕은 <안민가>로 신하들을 권계함으로써 나라가 태평하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다.

## 4. <제망매가>와 <찬기파랑가>의 존재 이유

### 4.1. 일연의 <제망매가> 수록 의도

『삼국유사』는 9개의 편목으로 구성되었고, 첫 편목인 왕력편을 제외한 나머지 편목에는 적게는 세 편의 이야기부터 많게는 50여 편이 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각 편목에 속한 이야기들은 편목명에 부합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편목명 아래 묶여 있을 것이다. <도솔가>가 실린 ‘월명사도솔가조는 감통이라는 편목에 부합하는 이야기여서 감통편에 구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월명사도솔가조에는 <도솔가> 외에도 <제망매가>가 실려 있다. 『삼국유사』에서 향가 두 편이 한 이야기 속에 다루어진 것은 <도솔가>가 실린 ‘월명사도솔가조와 <안민가>가 실린 ‘경덕왕총담사표훈대덕’조뿐이다. 즉 『삼국유사』 전체로 보았을 때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제망매가>의 경우는 월명사가 지었다는 것 외에 <도솔가>가 지어진 이야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도 실렸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제망매가>가 실린 이유는 감통이라는 편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 감통편은 “두드러진 종파에 속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비 체험 내지 종교적 체험”<sup>43)</sup>을 다룬 편목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도솔가>를 정치적 상황을 전제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감통편에 실린 것이 당연해 보인다. 왜냐하면 승려인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이 일병현’이라는 변괴가 사라졌고, <도솔가>의 내용이 미륵불을 모시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도솔가>가 지어진 이야기가 감통편에 실리는 것이 당연하다면

43) 尹柱弼, 「《三國遺事》의 체재와 주제 - <感通>편의 체재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韓國學論集』 1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9, 128쪽.

‘월명사도술가’조에서 굳이 <제망매가>를 소개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월명사도술가’조에서는 <제망매가>와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 그리고 월명리라는 지명 유래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것들이 월명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함께 소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망매가>와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 월명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를 감통편 다른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감통편에는 모두 10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어떤 인물의 종교적 체험을 다루고 있으며, 그 종교적 체험은 이적이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데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과 구별되는 점은 월명사의 경우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이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다른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교적 이적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다. 즉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어떤 일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며, 자신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이적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반면 월명사의 경우는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에서 ‘이일병헌’은 경덕왕과 관련된 일이다. ‘이일병헌’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천변이므로 왕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더구나 월명사는 ‘이일병헌’의 변괴를 없애기 위해 나서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sup>44)</sup> 월명사는 경덕왕의 요청을 받고서야 <도술가>를 지어 불러 ‘이일병헌’이 사라지도록 했다. 또한 이적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것이 월명사의 신앙심 때문인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sup>45)</sup> 이러한 사실이 감통편 다른 이야기들과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를 구별 짓도록 한다.

‘이일병헌’은 경덕왕과 관련된 일이므로 경덕왕이 해결해야만 하며, 경덕왕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이적이 일어나야만 감통편 다른 이야기들과 같은 성격을 갖

44) 이는 감통편 ‘용천사혜성가진평왕대’조와 구별되는 점이다. 이 이야기는 ‘월명사도술가’조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바로 용천사는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일이 생기자 노래를 지어 불러 괴변을 사라지게 하였다는 점이다. 즉 월명사와 달리 용천사는 능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이다.

45) 이야기 후반에 일연의 설명으로 월명사의 신앙심이 입증될 뿐이다.

게 된다. 하지만 경덕왕은 ‘이일병환’을 월명사를 통해서 해결했다. ‘월명사도솔사조에서 <도솔가>가 지어진 이야기만으로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일병환’을 사라지게 해야 할 왕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이일병환’을 사라지게 한 월명사는 이를 해결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솔가>가 지어진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교적 체험의 주체가 감통편 다른 이야기에 비해 모호해지고 말았다. 더욱이 종교적 체험의 원인이 되는 ‘이일병환’이 인물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sup>46)</sup> 감통편 다른 이야기들에서 인물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주체로서 종교적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도솔가>가 지어진 이야기가 감통편 다른 이야기들과 같게 되려면 월명사가 종교적 체험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월명사도솔가’조에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가 덧붙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에서 종교적 체험의 주체는 월명사가 분명하다.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망매가>를 부르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 없어졌다고 한다. <제망매가> 속에 등장하는 미타찰은 아미타불이 존재하는 서방정토를 말한다. 월명사가 <제망매가>를 부르자 갑자기 분바람에 지전이 서쪽으로 갔다는 것은 월명사의 노래의 내용에 대해 아미타불의 응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제망매가>는 『붓다차리타』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으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노래라는 점이다.<sup>47)</sup> 이를 고려한다면 <제망매가>는 월명사의 종교 생활이 반영된 노래인 것이 분명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 체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노래가 된다. 결국 감통편에 이야기로 보기에 부족했던 <도솔가>가 지어진 이야기에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가 덧붙여짐으로써 ‘월명사도솔가’조를 감통편에 적합한 이야기로 만들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sup>48)</sup>

46) 황병익은 ‘이일병환’을 환일 현상으로 보고, 『금광명경』과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에 등장하는 천변 현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하더라도 감통편 다른 이야기들이 인물의 종교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비해 이 천변 현상은 월명사의 종교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黃柄翊, 앞의 논문, 2002, 146-151쪽.

47) 신영명, 「<제망매가>, 회향의 노래」, 『국제어문』 32, 국제어문학회, 2003, 102-108쪽.

감통편 이야기로서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는 한계가 있었다. 감통편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 인물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월명사도술가조에서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왕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감통편 이야기로서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의 한계는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와 월명리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여짐으로써 극복될 수 있었다.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와 월명리에 대한 이야기는 월명사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체험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까지도 감통편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다.

#### 4.2. 경덕왕의 <찬기파랑가> 소개 의도

『삼국유사』 기이편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에는 충담사가 지은 <안민가>와 <찬기파랑가>가 실려 있다. 앞서 다룬 <제망매가>의 경우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 속에 <제망매가>는 등장하지 않는다. <제망매가>는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와 별도로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그래서 ‘월명사도술가조는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와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찬기파랑가>는 <안민가>가 지어진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다. <찬기파랑가>는 경덕왕이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지어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 중에 언급된다. 그리고 이야기의 말미에 <안민가>의 전문이 소개된 후 <찬기파랑가>의 전문도 소개되고 있다.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린 <안민가>는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았다. 이런 점에서 경덕왕이 서정 가요라 할 수 있는 <찬기파랑가>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점은 경덕왕이

48) 일연은 이외에도 월명리 지명 유래와 향가가 천지·귀신을 감동시킨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내용도 밝히고 있다. 이는 감통편 이야기로서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만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월명사도술가조’의 찬시를 보면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와 관련이 적다. 이는 ‘월명사도술가조에서 감통편에 부합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와 월명리 지명 유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찬기파랑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덕왕이 알 정도라는 것은 <찬기파랑가>가 당대에 널리 유행한 노래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경덕왕과 충담사는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므로 충담사가 <찬기파랑가>를 짓고 왕에게까지 알려지려면 널리 유행했을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찬기파랑가>가 널리 유행했을지는 의문이다. 경덕왕은 <찬기파랑가>를 언급하며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했다. 뜻이 높다는 것은 <찬기파랑가>의 내용이 깊이가 있고 고상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노래를 일반 백성들이 좋아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덕왕이 <찬기파랑가>를 알았던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경덕왕이 충담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경덕왕은 충담사라는 승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경덕왕과 충담사와 대화 때문이다. 경덕왕은 신하들이 충담사를 데려 온 후 곧바로 <안민가>를 지으라고 시키지 않았다. 경덕왕은 이름뿐만 아니라 행적도 물었는데 이는 데려 온 승려가 충담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경덕왕은 충담사의 이름과 행적을 확인하고도 <안민가>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자신에게도 차를 줄 수 없겠냐고 하였고 이에 충담사는 왕께 차를 올렸다. 이를 보면 경덕왕은 충담사가 자신이 들은 것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경덕왕이 충담사의 인물됨을 확인해야만 했던 것은 신하들이 왕해공왕에 충성할 것을 권계하는 내용의 <안민가>를 지으라고 요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덕왕이 충담사가 어떤 인물인지 확인하려 했다는 것은 충담사에게 차를 요구한 것으로서 짐작할 수 있다. 충담사는 일 년에 두 번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올렸다. 그런데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자신에게도 차를 한 잔 나누어 줄 수 없냐고 하였다. 경덕왕은 차 맛이 궁금해서 월명사에게 차 한 잔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달리 본다면 이는 충담사에게 부처와 자신을 동등하게 모실 수 있겠냐는 물음이기도 하다. 왕이 차 한 잔 요구한 것을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다. 하지만 차는 흥덕왕 3년(828)에야 재배가 시작<sup>49)</sup>되어 경덕왕 때는 차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는 점이다. 또한 충담사는 그 차를 일 년에 두 번만 미륵세존에게 공양하였으므로 그날 올리는 차는 미륵세존을 섬기는 충담사의 마음이 담긴 차였다고 볼 수 있다. 경덕왕은 충담사가 이 날 차를 올리는 것을 알고 출행하여 충담사의 마음을 떠본 것이다. 경덕왕의 입장에서 볼 때 충담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충담사는 충성심보다 신앙심을 중시하는 인물인 셈이다. 그렇다면 충성할 것을 권계하는 내용의 <안민가>를 요구한다 해도 적합한 노래를 짓기 힘들 수 있다. 경덕왕이 차를 요구한 것은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경덕왕이 차를 요구한 것은 충담사가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지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경덕왕은 충담사가 올린 차를 마시고 나서야 자신이 충담사를 데려 온 이유를 밝히기 시작한다. 경덕왕은 <찬기파랑가>를 언급하면서 ‘그 뜻이 매우 높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경덕왕이 충담사를 데려 온 이유가 <안민가>를 짓는데에만 있었다면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지어달라고 바로 요구해도 됐을 것이다. 그런데 경덕왕은 충담사가 지은 <찬기파랑가>와 그 노래의 성격을 언급한 후에 <안민가>를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찬기파랑가>와 같은 성격의 내용을 담은 <안민가>를 지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경덕왕이 <찬기파랑가>를 언급한 것은 자신이 요구하는 <안민가>가 <찬기파랑가>와 궤를 같이하는 것임을 충담사에게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한 노래이다. 기파랑의 사적이 전해지지 않아 기파랑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찬기파랑가>의 내용으로 보아 기파랑은 변하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이자 높은 뜻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sup>50)</sup> 기파랑이 이런 인물이었다면 <찬기파랑가>는 경덕왕에게는

49) 『삼국사기』 흥덕왕 3년조를 보면 이때 대림이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차 종자를 가져와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50) 성호경은 <찬기파랑가>의 6~8구 ‘逸鳥나릿 지벼괴/ 郎이여 디니터시은/ 므스믹 그을 좃느라 겨를 “가련한 백성들에 지니시던 기파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파랑은 백성들을 사랑하였던 인물로 볼 수 있고, <안민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하들의 역할은 바로 기파랑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승려였던 충담사가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은 불법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호경, 「<찬기파랑가(讚者婆郎歌)>의 시세계」,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 136쪽.

의미 있는 노래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덕왕에게는 변하지 않는 마음과 높은 뜻을 지닌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나이가 들어가고 왕자는 어린데다가 문제까지 있었다. 경덕왕이 굳이 <찬기파랑가>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려 편안케 할 노래[안민가]’를 지어달라는 것이 자신에게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담사에게 밝힌 것이다. 경덕왕은 자신이 원하는 <안민가>가 신하들이 기파랑 같은 인물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는 데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경덕왕은 <찬기파랑가>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은연중에 비친 것이다. 경덕왕은 <안민가>를 듣고 아름답게 여겼다고 했다. 이는 충담사가 경덕왕의 의도를 파악하고 신하의 역할을 강조하는 <안민가>를 지었기 때문이다.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지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찬기파랑가>를 언급하였다. 문제가 있었던 왕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덕왕은 의도적으로 <찬기파랑가>를 언급한 것이다. 왕자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나라가 태평하려면 ‘백성을 다스려 편안케’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하들이 왕을 잘 섬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덕왕은 그런 노래를 충담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찬기파랑가>를 언급한 것이다. 경덕왕이 <찬기파랑가>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충담사는 왕에게 올리는 <안민가>를 지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결론

『삼국유사』 감통편 ‘월명사도솔가조에는 <도솔가>와 <제망매가>가 실렸고, 기이편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에는 <안민가>와 <찬기파랑가>가 실렸다. 본고는 이 네 편을 대상으로 <도솔가>와 <안민가>는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을 전제로 살펴보고, <제망매가>와 <찬기파랑가>는 이야기 속에서 소개된 이유와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덕왕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도솔가>의 창작 동기인 ‘이일병환’은 내물왕계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일병환’은 태자 책봉 무렵 내물

왕계의 등장과 관련한 정치적 상황의 은유이며, ‘이일병현’이 사라졌다는 것은 정치적 타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술가>는 이러한 정치적 타협 속에 존재하는 경덕왕의 메시지로 미륵좌주를 모시는 것처럼 곧은 마음으로 왕을 모시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민가>는 해공왕 출생담과 관련된 노래로서 나라가 태평하려면 신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 노래이다. 특히 왕자에게 문제가 있으므로 왕자를 잘 보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하들을 권계하기 위해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백성들을 보살피는 어머니로서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감통편에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가 실렸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감통편에 어울리는 이야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는 월명사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명사도술가’조에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가 실린 것은 월명사의 신앙심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술가>가 지어진 이야기도 월명사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제망매가>가 지어진 이야기가 ‘월명사도술가’조에 실린 것이다.

<찬기파랑가>는 경덕왕이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급한 노래로 볼 수 있다. 경덕왕은 나라가 태평하려면 신하들이 왕왕자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하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경덕왕은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요구하면서 충담사가 자신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기파랑의 인물됨이 드러난 <찬기파랑가>를 언급한 것이다.

향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향찰의 해독이 완전하지 않고, 전하는 전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가를 이해할 때는 추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본고도 그래서 상당 부분에서 많은 추정을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논의의 결과로 한 이야기 속에 두 노래가 왜 다루어졌는지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리라 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노래의 의미나 역할도 달리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姜聲媛, 「新羅時代 叛逆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42, 韓國史研究會, 1983, 23-60쪽.
-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 민족사, 1990.
- 金壽泰,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邕」, 『歷史學報』, 99·100, 歷史學會, 1983, 123-145쪽.
- 金英美, 「統一新羅時代 阿彌陀信仰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50·51, 韓國史研究會, 1985, 37-78쪽.
-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出版部, 1980.
-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10, 檀國大 出版部, 2007.
- 박찬홍, 「신라 녹음의 수취에 대하여」, 『韓國史學報』, 6, 高麗史學會, 1999, 48-74쪽.
- 성호경, 「<찬가파랑가(讚耆婆郎歌)>의 시세계」,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 233-262.  
(UCI: G704-000019.2004..136.009)
- 신영명, 「<제망매가>, 회향의 노래」, 『국제어문』 32, 국제어문학회, 2003, 91-113쪽.  
(UCI: G704-000774.2004..32.001)
- 신재홍, 「향가에 나타난 정치의 이념과 현실 - <도솔가>, <안민가>, <원가>를 대상으로」, 『古典文學研究』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189-220쪽.  
(UCI: G704-000294.2004..26.002)
- 申政勳, 「新羅 景德王代 王權強化策의 性格」, 『동서사학』 6·7합, 동서사학회, 2000, 1-61쪽.
- 申政勳, 「8世紀 統一新羅의 政治的 推移와 天災地變의 性格」, 中央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0.
- 尹柱弼, 「《三國遺事》의 체재와 주제 - <感通>편의 체재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韓國學論集』 1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9, 125-158쪽.
-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 이도흠, 「도솔가의 和諍詩學的 研究」,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50-91쪽.
- 임주탁, 「<안민가>의 창작 동기와 의미 해석」, 『한국문학논총』 57, 한국문학회, 2011, 5-28쪽.  
(UCI: G704-000592.2011..57.003)
- 조동일, 『(제3판)한국문학통사』 1권, 지식산업사, 1994.

趙二玉, 「統一新羅 景德王代 專制王權과 祿邑에 對한 再解釋」, 『東洋古典研究』 1, 東洋古典學會 1993, 65-102쪽.

韓圭哲, 「新羅와 渤海의 交渉과 對立」,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1994, 305-348쪽.

黃柄翊, 「『三國遺事』 ‘二日竝現」과 「兜率歌」의 의미 고찰」, 『語文研究』 115,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2, 145-166쪽.

(UCI: G704-000452.2002.30.3.012)

| Abstract |

## The Meaning and Role of 4 Hyangga Works in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Park, In-hee

This paper reviews Hyangga works written in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Dosolga>, <Jemangmaega>, <Anminga>, and <Changiparangga>. <Dosolga> and <Anminga> are songs to fit the characteristics of Pyeonmok that they are contained in. By the way, <Jemangmaega> and <Changiparangga> are contained together. In existing discussions, the works were understood with a focus on their relation with the authors, Wolmyeongsa and Chungdamsa, and the songs, introduced together, also were treated with a focus on the authors. This paper examines <Dosolga> and <Anminga> with a focus on King Gyeongdeok who made the two songs written, rather than on the authors, and, based on it, considers the reason why <Jemangmaega> and <Changiparangga> were introduced, as well.

Based on King Gyeongdeok, 'Iilbyeonghyeon(二日竝現, two suns appearing in the sky)', the motivation for creating <Dosolga>, could be seen as an expression related to the appearance of the royal lineage of King Naemul. Considering that, <Dosolga> could be understood as a political message that King Gyeongdeok sent to his subjects, as a result of derailing the appearance of the royal lineage of King Naemul with a political compromise. <Anminga> that is a song related to the birth story of King Hyegong is a message that King Gyeongdeok sent to his princes and subjects and shows that subjects should play a large role in the country's peace. In doing so, he intended to admonish his subjects.

Ilyeon introduced <Jemangmaega> because Wolmyeongsa made 'Iilbyeonghyeon' disappeared but the process of creating <Dosolga>, by itself, didn't correspond to Gamtong-pyeon. He dealt with <Jemangmaega> because he could supplement the story, insufficient for Gamtong-pyeon, by showing Wolmyeongsa's faith through introducing the story that <Jemangmaega> was written. King Gyeongdeok mentioned <Changiparangga> in order to expect <Anminga> stressing subjects' role from Chungdamsa. Therefore, by mentioning <Changiparangga>, King Gyeongdeok indirectly expressed what he wanted a song to Chungdamsa.

Key words : Hyangga, Anminga, Dosolga, Changiparangga, Jemangmaega, Sangukyusa

투고일 : 2018년 7월 15일 심사기간 : 7월 30일 - 8월 14일 게재확정일 : 8월 15일

